

# ‘대장동 로비 의혹’ 확산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돌입

### 직무 관련 뇌물 아들 성과급 가장 혐의 병채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돼 50억 의혹 항소심 같은 날 첫 공준기일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 등의 첫 재판절차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규)는 이날 오후 3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 전 의원 부자 및 화천대유자산관

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21년 4월께 광 전 의원이 대장

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게는 광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육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

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광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광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총선을 전후로 총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심리로 50억 의혹 관련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광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같은 사건으로 광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의뢰해 구속기소 했으나 1심 법원은 올해 2월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광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광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선욱기자



5·18 무명열사 묘소 참배하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무명열사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무명열사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 ‘건설업체 압박’ 돈 뜯은 환경매체 대표 1심 실형에 항소

### 공갈 등 혐의...징역 4년6개월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압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환경매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매체 김모(76) 대표는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기자 3명 중 2명은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항소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3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기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년, 2년6개월을 내리고 이 중 2명은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언론사 취재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은 위법할뿐만 아니라 언론 역할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한다”며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갈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

기도 양주시를 비롯한 건설현장을 돌며 위법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매체에서 발간한 환경 관련 백서 등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갈취 피해를 입은 업체는 119곳, 피해액은 7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수사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김수권기자

## “유재석·BTS·뉴진스가 응원” 이낙연 신당 ‘가짜 포스터’ 논란

### 민주주의실천행동 “웹자보 발행한 적 없어” 해명

유재석, BTS, 손흥민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짜 신당 홍보 포스터’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낙연 신당을 응원하는 포스터가 확산됐다.

해당 포스터에는 ‘양당체제 이낙연이 바꿨다’ ‘이낙연 신당 국민이 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유명 인사들이 대거 등장, 문재인 전 대통령, 가수 아이유, 아이돌 그룹 BTS·블랙핑크·뉴진스, 방송인 유재석, 스포츠인 손흥민·김연아 등의 사진이 포함됐다. 중앙에는 이 전 대표가 위치했다. 사진 아래는 ‘네, 국민이 원하면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없는 민주당’ 등의 문구와 함께 친박계 모임

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의 로고가 자리 잡았다. 논란이 일자 민주주의실천행동은 SNS를 통해 “해당 웹자보는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X(옛 트위터) 사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라며 “이 같은 웹자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용자는 그동안 반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혹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를 사칭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왔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문과가 개팔에 어묵탕 국물을 부어 4도 화상을 입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인물과 동일인”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권 원외인사들과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